북스

Books

전 국민의 착한 국어책

건방진 우리말 달인

'거시기' '시방' '아따'는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이며, 꼼장어가 아니라 '곰장어', 쭈꾸미가 아니라 '주꾸미'가 맞다.

단어, 문법 등 잘못 쓰이고 있는 우리말을 까탈스럽게가 아닌 '까다롭게' 살핀 '건방진 우리말 달인'이 출간됐다. 일간지 교열기자와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의 부회장이자 20여년간 일간지 교열기자로 일한 엄민용씨가 우리말에 대한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주며 한국어 달인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준다.

틀리기 쉬운 우리말 단어와 한자어, 버려야 할 일본말 찌꺼기, 바른말을 쓰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우리말 문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수백 개의 오류를 찾아냈고, 중학교 교과서 속의 오류 사례도 일일이 찾아냈다. 〈다산초당·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안중근·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물적·정신적 지주

"그는 조선의 체 게바라였다"

대륙의 영혼 최재형

이수광 지음

낡은 시대가 깨지고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천재나 영웅의 탄생과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조력자였으면서도 민족의 영웅이었던 인물이 있다.

헤이그 밀사 이상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민족사학자 신채호 등 우리 민족 영웅들의 뒤에는 바로 최재형이 있었다. 그는 '독립운동가'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 '페치카(따뜻한 사람) 최' '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정치인' 등으로 불리며 1905년 항일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1920년 연해주에서 일본군에 처형될 때까지 의병을 조직하고,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아낌없이 바쳤던 인물이다.

러시아에서는 전설적인 민중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로 꼽혔던 최재형의 파란만장한 삶이 소설 '대륙의 영혼 최재형'으로 살아났다.

책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 시신조차 남기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기까지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일생을 고스란히 담았다.

역사추리소설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을 쓴 저자 이수광 씨가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을 바람처럼 떠돌고 있던 최재형의 흔적들을 찾아 그의 불꽃 같았던 인생을 소설적인 기법을 동원해 살렸다.

소설 속 최재형은 노비의 자식인데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유일했다. 선원 생활을 했던 경험이 바탕이 돼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고 이후 러시아 군대에 식량을 납부하는 조달업자로서 큰 재산을 모아 한인 자치 기관장인 도헌(都憲)으로 추대된다. 어디까지나 장사꾼이었지만 재산이 모이는 대로 교육운동과 빈민 구제를 위해 썼다. 조선의 독립과 러시아 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고 직접 독립운동에도 뛰어든다.

최재형 선생

1912년 최재형 선생의 두번째 부인 엘레나 페트로비나 김(오른쪽)과 자녀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주 의병의 조직책이자 재정적 후원자인 동시에 게릴라전을 이끌었던 항일운동가, 민족 언론지 '대동공보' '대양보'를 발행한 언론인, 재러 한인 사회의 지도자 및 교육자로의 행적을 보여준다. 더불어 노비의 자식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 이룰 수 없는 첫사랑 등 인간 최재형이 느껴야 했던 애잔한 감정도 놓치지 않았다.

연대순으로 나열한 전기형식의 고리타분한 위인전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소설적인 기교와 상상력이 가미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소설 속에서 그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해주 이민의 역사와 한인 독립운동사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근대적인 풍경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 러시아 한인 사회를 이끌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최재형은 존경받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낙타 신경림 지음

여행에서 깨닫는 삶과 시 철학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천상병 '귀천' 중.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조태일 '풀씨' 중.

원로 시인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는 시집을 내곤 한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며 평생을 보낸 이들 시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편안한 여행길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덧 고희를 넘긴 신경림의 열 번째 시집 '낙타'에도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통찰이 가득하다.

신경림은 표제작인 '낙타'를 통해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라고 노래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미련없이 낙타가 사막을 가듯 떠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진다.

대부분의 시들은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터키 등지를 끊임없이 여행하면서 삶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이번 시집에는 그의 새로워진 시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스스로 "시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해야 하며,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품고 평생 시를 썼다고 말했다.

그의 시집 '농무' 등에서 1970~1980년대 농촌의 아픔을 노래했듯, 그는 평생 삶의 주변부를 맴도는 소외계층의 아픔과 슬픔, 희망을 노래해 왔다. 시의 배경은 늘 허름한 선술집, 폐광, 장터였다. 현실에서도 자유실천문인협회(민족문학작가회의 전신)의 창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 왔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민요시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붙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통일이나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은 시가 어찌 오늘의 좋은 시가 될 수 있느냐'는 강압과 민요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시 쓰는 일이 즐거웠다"고 이번 시집에 함께 수록된 산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50여 년 넘게 현실참여적인 시를 써온 그가 밝힌 시 철학이기에 더욱 눈길이 간다.

시편들도 그의 시 철학을 닮아 흡사 아이가 옹알이를 하듯 별다른 꾸밈없이 전개된다. 〈창작과 비평·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화 같은 삶을 조명했다.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펜실베이니아주의 '낙수장'(Falling Water) 등 세계적인 현대 건축물이 그의 작품이기도 하다. 〈을유문화사·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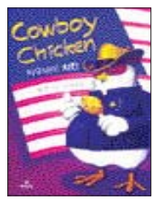
▲엘리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사회비평가이자 역사학자인 저자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대량 기아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정치적 비극이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가 상품시장과 가격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도서출판 이후·2만3천원〉

▲시간이 멈춰선 파리의 고서점-셰익스피어&컴퍼니=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주연했던 영화 '비포 선셋'의 배경이 됐던 고서점에서 공산주의자와 삼류시인, 범죄자에게 쫓기는 사회부 기자가 영화처럼 짜릿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시공사·1만2천원〉

▲삼성왕국의 게릴라들=김용철 변호사, 이상호 MBC 기자, 심상정·노회찬 국회의원 등 삼성의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운 7명의 활동과 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상대로 벌였던 힘겨운 싸움은 진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프레시안 북·1만2천원〉

▲카불의 사진사=2007년 세계적인 보도사진전 '페르피냥 포토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은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 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1년의 기록을 담았다. 동양인과 여성이라는 편견을 딛고 세계적인 포토저널리스트로 성장한 그녀의 치열한 삶을 엿볼수 있다. 〈동아일보사·1만2천원〉

▲한국의 무협 소설사=우리나라 무협소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서. 한국적 무협소설의 시작과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현황과 전망도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무협소설도 살폈다. 무협소설의 표지와 삽화도 수록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채륜·1만8천800원〉



▲카우보이 치킨=헤밍웨이 문학상 등 미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굵직한 상들을 석권한 중국 출신 작가 하진의 단편 8편을 묶은 작품집. 저자의 빼어난 유머와 특유의 페이소스가 진하게 묻어난다. 〈현대문학·1만원〉

▲소문난 옛날 맛집=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맛집을 소개했다. 서민 냄새가 물씬 풍기는 소박한 밥상을 통해 가족의 애틋함을 찾는 등 그리운 맛들에 대한 추억을 담았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네 주민이 잘 가는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라며 맛집 찾는 요령도 알려준다. 〈랜덤하우스·9천800원〉

▲별을 쫓는 아이-스타시커 1, 2권=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리버보이'로 '해리포터'를 제치고 미국의 저명 문학상인 카네기 메달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은 팀 보울러의 성장소설. 피아노를 매개로 14살 소년이 성장통을 극복해간다. 〈다산책방·각권 8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웰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광산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용봉동 3면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월산동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6억5천만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접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녹지 3,966(1,200평) 2억4천만
·월출동 대로접 주거지 1,090(330평) 4억8천만
·봉선동 25m접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안청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5천만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야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3,20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3.3㎡당 6천원
·화순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접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중원@ 대로접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집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빌딩
• 대지500 건물1,300 현방병원적합 치평동 매매가 75억
• 보증금 36억 월세3,100만원 (지역최고상권) 용지12억 매가80억 (토지와 교환가능)
• 보증금3억 월 1,700만원 (신축) 용지8억 매가 34억
• 보증금20억 월세4,000만원 용지8억 매가 55억
• 보증금5억 월세2,000만원 용지7억 매가 27억
▶땅
(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흥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흥가)
• 330㎡(100평) 3.3㎡당 800만원(사창억입구)
• 3,593㎡(1,087)3.3㎡당600만원
(기타지구)
• (쌍촌동)800세대아파트입구877㎡ (266평) 3.3㎡당 350만원(수파적합)
• (능촌)그린벨트73,000㎡(2만2천평) 능장 3.3㎡당 11만원(동산동)
• (쌍촌동)대지512㎡(155평)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 (장등동 3,760㎡(1,140평)평당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림동청고을로입구)
• 근린시설(병원,학원,목욕탕 적합) 1,652㎡ (500평)㎡ 당 700만원 (하층2지구)
• 1,200㎡ (360평)3.3㎡ 당 350만원 (병원,학원,식당 적합)(금호지구)
• 대지528㎡(160평)3.3㎡ 당 470만원 (주공아파트정문 앞)(수완지구)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지20억 매가28억
• 객실33개 용지9억 매매가12억
• 대지500/건물1,900 사우나 매가39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핸 010-8572-8985
『담양군 대덕면 임야』
18032㎡ 매3.3㎡당 4만3천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m접(공장, 물류창고, 사회복지시설적합)
『담양군 창평면 임야』
36023㎡ 매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접
『흑석동 자연녹지 잡종지』
9300㎡ 매3.3㎡당 180만원 (물류창고적합)
『양동 주거지역 8차선대로변 주공아파트 정문건너편』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시판매장, 물류창고, 사옥적합)
『중흥동 35m대로변』
대지920㎡ 한정식식당2층 건물있음 매9억5천만원 (고급식당, 사옥, 물류창고, 전시판매장, 카센타적합)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림식 건물있음 매2억5천만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 1명 구함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첨단지구 500평 200평
건물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골프 연습장 (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타
(2008년 2월 준공)
1층 53평 58평 40평 편의시설
2~6층 각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매장)529-1409 상담 010-2466-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정비·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록 최신 지적, 신규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월택지개발지구 기지반수록 나주 촌곡리 남양유업수록, 혁신도시 최종안 수록,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록
③ 화순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록 최신지적 수록
④ 장성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 남면에 그린벨트 1차,2차 해제수록 나노단지 지점, 배치도 수록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록, 최신지적 수록, 보촌지구 수록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록, 최신지적 수록
최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8개 시·군 1권에 수록)
한일지도판매(주) 매장 529-1409 527-6310
정가:100만원 ➡특별판매가:50만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서면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기념 일일동안 전화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위해 50% 세일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명 모집】